



이대은

2013년 WBC 우승팀·홈런 타자 올리보 경계대상...8강 진출 위해 반드시 잡아야



WBSC 프리미어12

일본의 '괴물투수' 오타니 쇼헤이(21·닛폰햄 파이터스)를 넘지 못하고 개막전에서 완패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중남미의 야구 강호 도미니카공화국과 격돌한다.

대표팀은 11일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안 구장에서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B조 조별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을 상대한다. 일본전 완패로 가라앉은 대표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8강 토너먼트 진출의 고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다.

국제야구연맹(IBAF) 세계 랭킹이 6위로 한국(8위)보다 두 계단 높은 도미니카공화국은 야구 선수 수출이 국가의 주된 수출이라고 할 정도로 메이저 리그는 물론 한국프로야구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다.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북방' 네덜란드에 두 차례나 달미를 잡으며 이번의 희생양이 됐지만 2013년 WBC에서는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비록 이번 대회에는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지만,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포진한 데다 워낙 야구 저변이 넓은 국가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선수로는 내야수 페드로 펠리스(40)가 꼽힌다. 2008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인 펠리스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메이저리그 통산 140홈런, 598타점을 기록한 강타자다. 도미니카공화국전 선발 등판이 유력한 이대은 또는 장원준으로서 펠리스 외에도 메이저리그 주전 포수 출신인 미겔 올리보(37)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리보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 통산 1124경기에서 타율 0.240에 145홈런을 기록했으며 2004년과 2006~2012년 등 8시즌 동안 두자릿수 홈런을 쏘아 올렸다. 펠리스와 더불어 전성기는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뛰

어던 투수 리드와 블로킹 능력은 여전히 도미니카 공화국 마운드의 위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야수들은 마이너리거들로 구성됐다. 대부분 더블 A에서 트리플 A 수준의 타자들로 타격의 정교함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남미 선수의 특유의 파워를 장악하고 있기에 실투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수 가운데 경계 대상 1호는 우완 투수 다니엘 카브레라(34)다. 메이저리그에서만 162경기(선발 155경기)에 등판해 48승 65패 평균자책점 5.10을 기록한 카브레라는 일본프로야구에서도 2년 동안 된 경험이 있다. 아시아 야구에 정통한 카브레라가 한국전 선발로 나온다면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국내 야구팬들에게 친숙한 이름도 있다. 2010년 쿠라 2년 동안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했던 투수 홀리오 데폴라(33)다. 하지만 데폴라의 두 시즌 통산 성적은 7승 15패 3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81로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올 시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산하 트리플 A에서는 48경기에 등판해 5승 3패 10세이브 평균자책점 4.08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제2의 임준혁’ 꿈꾸는 김윤동

투수 전향 뒤 상무 주축 선수 활약
세계선수권 15.2이닝 자책점 2.87
“홀가분한 마음으로 1군 복귀 준비”

KIA의 예비역 김윤동(22)이 1군 마운드를 꿈꾸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캠프의 투수조 막내는 2012년에 입단한 4년차 김윤동이다. 지난 가을까지는 상무의 병장으로 고참자리를 지켰던 김윤동이지만 이번 캠프에서는 7명이나 포진한 ‘92라인’에 이어 13명의 투수 중 막내다.

“어떻게 하다 보니 막내가 됐다. 어색할 것 없이 팀에 적응을 했다”고 웃으며 열심히 불타번을 하던 김윤동은 마무리캠프에서 마운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상무의 주축 투수로 활약을 하던 그는 지난해 21세 이하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3경기에 등판해 팀에서 가장 많은 15.2이닝을 던지며 2.8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설익은 투수에서 믿음직한 선수로 많은 이목을 소화하다 보니 제대를 앞두고 어깨에 탈이 났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서서히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내년 시즌 기대주로 올 시즌 일찍부터 이름이 언급됐던 김윤동이지만 사실 KIA에서 보여준 것은 많지 않다. 외야수로 입단을 했던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타격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86cm의 큰 키와 그의 강한 어깨에 주목한 코칭스태프의 권유로 투수로 전향을 했고 외야수 김윤동은 투수 김윤동이 됐다.

깜깜한 품에서 뿌리는 묵직한 직구로 어필을 하던 그는 2013년 7월23일 마침내 1군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한 경기 기록이 유일한 기록이다. 그것도 아웃카운트는 하나도 잡지 못했다. 김윤동은 자신의 프로 데뷔전에서 5명의 타자를 상대해 3개 피안타와 2개의 볼넷을 기록하고 씩씩하게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2군 선발 등판 후 3일 만의 등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웠던 첫 등장이자 퇴장이었다. 이후 2년의 시간 상무 선수로 뛰었던 그는 투수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다시 KIA 관계자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그의 피칭을 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시즌 당장 선발 한자리를 뛰어도 될 정도로 구위가 좋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부상으로 올 시즌 완주는 하지 못했다.

이번 캠프는 투수 김윤동으로 다시 시작하는 자리다.

지난 2년의 시간 마운드에서 싸우는 법을 배웠고 어린 나이에 군복무라는 무거운 짐도 떨어내면서 마음이 가볍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1군에서 싸울 체력과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김윤동은 “경험도 많이 쌓았다고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 몸 준비 잘해서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포수로 들어와서 투수로서의 새 시즌을 썼던 임준혁에 이어 외야수에서 투수로 변신한 김윤동이 2016시즌 마운드의 새 동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네소타 트윈스는 어떤팀

- 창단** 1901년
- 소속 리그** MLB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 구단명** 워싱턴 내셔널스/세네티스(1901~1960)
- 주요 성적**
 - 월드시리즈(1924, 1987, 1991) 통산 3차례 우승
 - 리그(6회), 지구(10회) 우승
 - 2015년 83승 79패, 승률 0.512의 성적으로 캔자스시티 로열스에 이어 지구 2위 기록
- 주요 선수** (2015년 성적)
 - 1루수 : 조 마우어(32) 158경기 타율 0.265, 10홈런, 66타점
 - 지명타자 : 미겔 사노(22) 80경기 타율 0.269, 18홈런, 52타점
 - 좌익수 : 에디 로사리오(24) 122경기 타율 0.267, 13홈런, 50타점
- 감독** 폴 윌리터
 - 1956, 8.22(미국)
 - 1978년 밀워키 브루어스 입단
 - 통산 3천 안타 이상을 쳐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스타 출신 감독
- 홈구장** 타깃 필드(2010년~) 수용 인원 42,035명

미네소타, 박병호 방망이로 가을야구 꿈꾼다

‘독점 교섭권 획득’ 공식 발표
올해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2위
15개 팀 중 타율 14위·홈런 10위
1루수 조 마우어 타격 하향세

박병호 (29·넥센 히어로즈)를 영입하겠다는 1285만달러(약 147억원)를 걸고 독점 교섭권을 따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은 미네소타 트윈스였다.

미네소타 구단은 10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박병호와의 교섭권을 획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같은 시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 역시 “박병호 포스팅의 승자는 미네소타”라고 전했다.

포스팅의 승자인 미네소타 트윈스는 다음 달 9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7시까지 30일간 박병호와 의 계약 교섭권을 독점으로 갖는다. 협상이 결렬

되면 미네소타 구단은 포스팅 금액을 돌려받고, 박병호는 일본프로야구 진출을 모색하거나 넥센에 잔류하게 된다. 이 경우 박병호 측은 내년 11월 1일까지 메이저리그에 포스팅 요청을 할 수 없다. 박병호와 미네소타 구단이 합의에 도달하면 박병호는 전 팀 동료였던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 리츠)에 이어 한국프로야구 출신 야수로는 두 번째로 미국 무대를 밟게 된다.

박병호는 올 시즌 140경기에서 타율 0.343, 53홈런, 146타점을 기록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KBO리그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50홈런을 쏘아 올리고, 4년 연속 홈런 타점왕에 올랐다.

박병호와의 독점 교섭권을 따낸 미네소타는 올 시즌 83승 79패를 기록하며 캔자스시티 로열스에 이어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2위를 차지했다. 시즌 막판까지 와일드카드 진출을 놓고 경쟁을 펼치며 만난 하위권팀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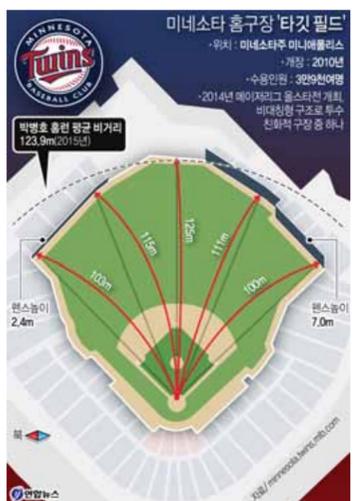
하지만 팀 타격에서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했다. 미네소타의 팀 타율은 0.247로 아메리칸리그 15개 팀 14위에 불과했다. 팀 홈런 개수도 156개로

10위에 그쳤다. 미네소타가 박병호 포스팅의 승자라면 그 배경에는 공격력 증강을 목표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네소타는 간판스타인 조 마우어가 포수에서 전향해 1루수를 맡고 있지만, 올 시즌 10개의 홈런밖에 치지 못한 정도로 하향세가 뚜렷하다.

미네소타는 ESPN에서 미네소타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대런 올슨이 “미네소타는 박병호에게 오랜 기간 깊은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 시즌에도 박병호를 보기 위해 목동구장을 자주 찾은 구단 중의 하나였지만, 선수단 연봉을 합한 페이를 순위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구단 가운데 18위에 불과한 스몰마켓 구단이었기에 포스팅에 1000만달러가 넘는 거액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병호 영입을 놓고 경쟁한 메이저리그 구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팀은 바로 미네소타였다. /연합뉴스



ML 스토브리그 달굴 FA

박병호 24위·이대호 29위

미국 야우스포츠가 10일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를 달굴 자유계약선수(FA) 순위를 나열했다. 포스팅으로 빅리그 직행을 노리는 박병호(24위), 일본프로야구를 거친 이대호(29위), 오승환(42위)은 꽤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야우스포츠는 “선수의 통산 기록과 나이, 잠재력, 시장 가치 등을 고려해 순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야우스포츠는 박병호(29)를 “최고의 배트 플립(배트 던지기) 기술을 갖춘 29세의 한국 거포”라고 소개하며 “미네소타가 1285만 달러의 최고 응찰액으로 독점교섭권을 얻었다. 다른 팀도 1100만 달러 수준의 배팅을 했다”고 뜨거웠던 박병호 영입전을 떠올렸다.

이대호(33)는 “194cm·130kg의 거구로, 힘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올해 일본프로야구에서 31홈런을 쳤다. 이적료를 지급할 필요없는 FA이고 다년 계약을 고려해도 좋을 타자”, 오승환은 “한국의 리베라로 2년 연속 일본 무대를 평정했다. 볼넷 보강이 필요한 팀에는 필요한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생각지 않은 팀...꿈이 현실 돼 신기해”

박병호 반응

“꿈이 현실화된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메이저리그 진출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호(29·넥센 히어로즈)는 포스팅 독점 협상권을 따낸 구단이 미네소타 트윈스로 밝혀진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눈앞으로 다가온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 설레는 감정도 드러냈다.

프리미어 12 한국 대표팀의 대만 현지 적응 훈련이 진행될 10일 대만 타이베이 티엔무구장에서 훈련을 앞두고 만난 박병호는 포스팅 승자가 미네소타로 밝혀진 것에 대해 “에이전트 쪽에서 들은 것도 있어서 (몇몇 구단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네소타가) 생각지 않은 팀이었던 것은 사실

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스몰마켓 구단임에도 빅마켓 팀들과의 포스팅 경쟁에서 승리한 미네소타는 박병호 측과 30일간 연봉 협상을 벌인다.

그는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미네소타가 포스팅 비용을 많이 적어낸 만큼 기회도 많을 것 같다.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미네소타의 간판타자 조 마우어와 1루수 포지션이 겹치는 박병호는 현재로서는 지명 타자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미네소타의 테리 라이언 단장도 이날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병호가 1루수를 보고, 때로는 3루수로도 나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명 타자가 더 어울린다”면서 “팀 사정상 1루는 조 마우어, 3루는 트레버 플루프가 맡는 게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박병호는 이에 대해 “제 주 포지션이 1루수로서 1루수로 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팀 사정을 모르지 않나. 지명타자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미네소타의 홈구장인 타깃필드가 좌측(2.4m)보다 우측(7m) 담장이 훨씬 높아 오른손 타자가 유리한 구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며 “야구장에 직접 가봐야 실감이 날 것 같다”고 했다.

박병호는 “제가 앞으로 어디에서 야구를 하든 지간에 살아남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장타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를 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